



금주의 농사 메모

기 간 2024년 3월 11일 ~ 2024년 3월 17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요 약

벼농사는 육묘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이며, 맥류는 습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관리에 신경써야 하고, 마늘·양파 습해 예방과 시설채소 일조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방,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사항과 환절기 가축관리 및 사료작물 분과종 사료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.

1 벼농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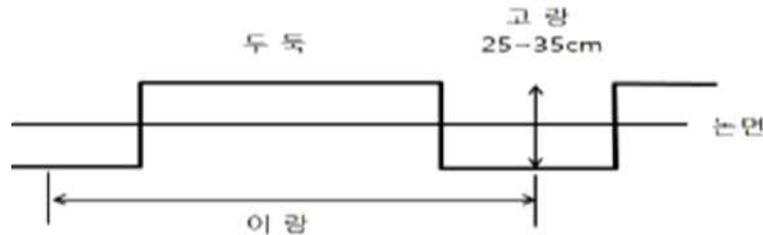
- ✓ (육묘준비) 재배목적에 맞게 고품질 밥쌀용, 특수미, 가공용 등 용도에 맞는 품종 및 순도가 높고 고유특성이 잘 보존된 종자를 선택하고, 신품종 재배는 적응지역,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.
- ✓ (소금물가리기) 자가 채종은 충실한 볍씨 선별을 위하여 까락제거 후 소금물가리기를 실시하는데, 소금물가리기는 3~10분 이내로 한 후 바로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늘에 말려 볍씨 소독까지 보관하거나 바로 볍씨 소독을 실시한다.
- ✓ (종자소독) 약제침지소독법은 적용약제를 물 20ℓ에 종자 10kg을 볍씨밭아기(온탕소독기)를 사용하여 30℃에 48시간 담가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2~3회 세척 후 싹틔우기 실시하고, 온탕소독방법은 물 100ℓ에 마른상태 벼 종자 10kg을 60℃에 10분간 담가 소독하고 냉수에 10분 이상 종자를 담가 식혀야 한다.
- ✓ (종자침종) 균일한 싹틔우기를 위해 20℃, 5일간 담가 종자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는데, 이때 침종기간은 물의 적산온도 100℃를 기준으로 물 온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(물 온도가 15℃일 경우 7일간 침종)
- ✓ (싹틔우기) 침종한 종자는 물기를 제거한 후 30~32℃에 어두운 조건에서 보통 1일 정도 두어 하얀 싹 길이를 1mm 내외로 키우면 적당하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경근(☎.055-254-1812)

2

밭작물

- ✓ (맥류) 잦은 강우로 인한 습해 및 갑작스러운 꽃샘추위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해 포장 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며, 배수로는 25~35cm 내외로 깊게 조성하고, 배수로와 농수로가 서로 연결되게 하여 배수구로 물이 잘 빠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.



- ✓ 습해로 식물체가 황화현상을 보이면 물빠기로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, 요소 2%액(요소 400g/20ℓ, 살포량 100ℓ/10a)을 2~3회 뿌려주어 생육을 회복시켜야 한다.
- ✓ (고구마) 씨고구마는 검은무늬병, 건부병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은 건전한 고구마,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진 고구마, 저장 중 냉해를 입지 않은 고구마, 재배작형에 알맞은 품종 선택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✓ 냉해를 입은 고구마는 양끝이 갈색으로 썩은 것이 많고 잘라보면 광택이 없으며 유액이 적게 나온다. 8월에 햇고구마를 출하하는 경우 괴근 비대가 빠른 풍원미, 신자미 등의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.
- ✓ 씨고구마로 전염되는 검은무늬병, 검은점박이병 등의 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전용약제 분의 소독 또는 47~48℃에 40분간 온탕소독 실시하여야 한다.
- ✓ 콩·팥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기간이므로 품종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(읍·면동사무소)로 신청한다.
 - 신청기간 : (1차) 2. 1. ~ 3. 12. / (2차) 3. 21. ~ 4. 10.
 - 신청대상 : 일반농가
 - 공급품종 : 콩(선풍, 대원), 팥(아라리)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류선미(☎.055-254-1813)

3

채소

- ✓ (마늘·양파) 최근 지속된 강우로 인해 연약하게 자란 포장이나 물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노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약제로 예방위주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며, 잎마름병, 흑색썩음균핵병, 고자리파리, 뿌리응애 등 주요 병해충 발생도 주의깊게 살펴 적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.
- ✓ (시설채소) 올 겨울 일조부족으로 인해 시설채소 착과가 잘 안되고 개화되어도 낙화되거나 착과되어도 낙과발생이 많으며, 과실의 비대와 착색이 늦고 당도가 매우 낮아 상품성이 떨어지고, 기형과, 착색불량과, 수확기간 연장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.

- ✓ 낮 동안 천창 및 측창을 이용한 적극적 환기로 과습 방지하고, 관수 억제에 의한 토양수분 조절로 뿌리활력 증진시켜야 하며, 장기 무 일조 후 강한 일조 시 시들음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차광으로 방지해야 한다.
- ✓ 인공수분 및 착과제를 처리하여 착과율 증진시키고, 온도, 토양수분 등의 조절로 초세를 강건하게 관리해 주어야 하며, 미생물제, 근활력 촉진제 등의 관주 처리로 생육 촉진시켜야 한다.
- ✓ 수경재배 작물은 양액농도를 기준보다 다소 높이고 공급량을 줄여 배지 내 과습 피해방지 및 양·수분 흡수 균형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.
- ✓ 일조가 부족하면 작물이 연약하게 자라고, 과습으로 덩굴마름병, 잿빛곰팡이병, 시들음병과 역병 발생이 증가하므로 적용약제로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최병길(☎.055-254-1822)

4 과 수

- ✓ (묘목심기) 과수묘목 심기는 겨울이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봄에 심는 것이 언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데, 봄 심기는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에 토양이 해빙되면 즉시 심어야 하고, 늦어도 3월 중·하순까지는 심어야 한다.
- ✓ 심는 거리는 과종, 토양의 비옥도, 품종의 수세, 나무모양 및 전정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, 토양이 비옥하고 수세가 강한 품종일수록 심는 거리를 넓히고 척박한 토양이나 수세가 약한 품종일 경우는 좁혀서 심는다.
- ✓ 묘목을 심은 후 뿌리가 흙과 잘 밀착되도록 하고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고 물을 10~20ℓ 준 다음 물이 흡수된 후 복토해야 생육이 좋아진다.
- ✓ (저온피해예방) 저온피해 상습발생 지역 및 늦서리 발생이 우려되는 과원에서는 예방시설 사전점검 필요한데, 관수시설 점검 및 가동 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 가동하여 점검하여야 한다.
- ✓ 방상팬은 나무 위에 6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가동하고, 말아 직전 2℃ 전후, 개화기 이후에는 3℃ 정도로 설정하여 일출 이후까지 팬을 가동하여야 한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형준(☎.055-254-1823)

5 축 산

- ✓ 환절기에는 축사 내·외부 온도차 등에 대비하여 축종 및 축사시설에 따라 축사 내부 환경관리(청결) 및 방풍·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✓ (한우) 송아지는 추위에 약하므로 환경온도가 10℃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 관리를 통해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을 예방하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급여해야 한다.

- ✓ (젓소)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 및 축사 바닥 청결관리 유의해야 한다.
- ✓ (돼지) 일교차가 5℃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유의하고,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자돈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- ✓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 및 습도 범위

성장단계	적온범위(℃)	적정습도(%)
임신돈, 웅돈	16~21	50~60
포유모돈	18~21	50~60
포유자돈	30~35	60~70
이유자돈	22~29	60~70
육성초기	20~27	60~70
육성후기	18~22	50~60
비육돈	16~21	40~60

- ✓ (닭) 20℃ 이하 환경에서 1℃ 낮아질때마다 사료 섭취량이 약 1%씩 증가하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.
- ✓ (사료작물)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하여 사료작물의 생육이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만든 배수로에 흙덩이로 물이 고여 있거나 물 빠짐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배수로 정비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.
- ✓ 귀리는 봄철 재배가 가능한 단경기 사료작물로 파종 후 두달이 지나면 풋베기로 이용 가능하므로 이른 봄 경운작업이 가능할 정도만 되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다.
- ✓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, 내부관리 철저,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,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※문의 :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맹금(☎.055-254-1833)